



NH농협은행, 전사적 농촌일손돕기 릴레이

NH농협은행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본부 부문별, 지역 영업본부별로 전사적인 농촌일손돕기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승현 수석부행장(왼쪽)은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원예농가를 찾아 씨앗 심기, 화초 전지작업과 폐농자재 회수 등 농촌일손돕기 릴레이에 동참했다.

/NH농협은행



갤러리아백화점 코로나 극복 희망 메시지 밝힌다

갤러리아백화점은 9일부터 2주간 '라잇!러브 쉐린지(Right!LOVE 쉐린지)'를 진행한다. 백화점 외관에 희망과 연대의 상징인 하트 영상을 연출하여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아 명품관 미디어파사드(외관 조명)를 활용해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하트'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Q.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30일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주식보유비율요건을 갖췄던 주주가 소 제기 후 주식보유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주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 위 주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A.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 판례는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해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 명의 주주가 주식보유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를 합산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하다.

한편,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소를 제기할 당시에 주식보유비율요건을 갖췄다면, 이후 보유주식의 수가 요건에 미달하게 돼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돼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주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에는 다른 원고들과 함께 주식보유비율요건을 충족하게 된 A 회사의 주주가 소송 계속 중 A 회사와 B 회사의 주식교환으로 B 회사의 주주가 되고, B 회사가 A 회사의 100% 주주가 된 사안에서, 위 주주는 더 이상 A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됐으므로 원고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한편, 위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인 B 회사의 주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행 상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이종대표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참조), 위 주주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대한상의 SGI 신임원장에 임진 위촉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제2대 원장에 임진 전(前)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사진)이 위촉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대 서영경 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후임자로 임진 신임 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임진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



사국, 경제연구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대여성암병원)

이대여성암병원 인종양센터의 김승철 교수(사진)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8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으로 재임 시 전국



여성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한금융-씨젠, 뉴욕교민 위해 진단키트 기부

뉴욕한인사협에 5000명분 전달

신한금융그룹과 지난 7일 씨젠과 함께 뉴욕 한인사협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5000 명분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7일 기준으로 확진자 122만 3468명, 사망자 7만3039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뉴욕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지만 진단테스트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는 신한금융의 현지 계열사인 신한은행 뉴욕지점, 현지법인 신한아메리카가, 신한금융투자 뉴욕법인이 영업 중에 있다. 씨젠은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세계 60여개국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신한금융과 씨젠의 공동 후원은 이현지 뉴욕 한인사협회장을 통해 전달됐으며, 한국교민들에게 사용



(앞줄 왼쪽부터)조정훈 신한은행 아메리카 CFO, 도건우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서태원 신한은행 아메리카 은행장, 장원삼 주 뉴욕총영사, 이현지 뉴욕한인사협회장, 김준영 신한금융투자 뉴욕법인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될 예정이다.

뉴욕 한인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 교민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무료 항체검사'를 주최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코로나19 진단키트도 한국교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뉴욕 지역 한인교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작은 힘이지만 교민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신한금융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파이낸셜 뉴스 △에디터(정치, 경제, 사회 담당) 노주석 △사회부장 조창원 △사회부 전문기자 박인옥 △국제부장 오승범 △정치부장 직무대행 심형준 △논설위원 정인홍
-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원 △건설본부장 이종윤 △기술본부장 이인희 △시설본부장 장봉희
- ◆연합뉴스 △본부장·단장·에디터 전보 △국제뉴스1부 유택형 △경남취재본부 지성호 △광주·전남취재본부 송형일 △편집국 선임데스크팀 김계환 △한류기획단장 김태

- 식 △경남취재본부장 최병길 △편집국 경제에디터 강의영 △ " 국제에디터 신지훈 △부장 전보 △영어영상부장 정주호 △영상미디어부장 김화영 △정치부장 김재현 △문화부장 김경선 △산업부장 박성제 △소비자경제부장 김지훈 △IT의과학부장 서한기 △정책뉴스부장 심인성 △전국부장 옥철 △국제뉴스1부장 김기성 △인천취재본부장 이상원 △광주·전남취재본부장 김재선 △전북취재본부장 이봉준 △충북취재본부장 박병기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장 유창엽 △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인교준 △IT의과학부 과학전문기자 이주영

- △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노효동 △ " 최태용 △공공사업부 김진형 △부장 승진·전보 △공공사업부장 이춘근 △인천취재본부 취재본부장 강중구 △영상마케팅부 마케팅1팀장 권태일 △정보사업국 글로벌전략팀장 김범수 △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고봉준 △공공사업부 권신주 △제작시스템부 이동익 △성남주재 최찬홍 △부산취재본부 박형태 △대구·경북취재본부 이덕기 △충북취재본부 심규석 △사진부 안정원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김성진 △팀장 전보 △재무회계부 영업관리팀장 양수용 △총무부 행정팀장 김정태

- ◆연합뉴스TV △정치부장 노효동 △스포츠문화부장 최태용 △뉴스총괄부장 김가희 △콘텐츠제작부 선임PD 류관형 △그래픽뉴스부장 박현 △보도국 영상편집팀 선임위원 조동욱 △콘텐츠제작부장 이진균 △경영기획실 뉴미디어사업팀장 김경수 △영상편집부장 노일환 △보도국 편집팀장 홍성준 △디지털뉴스부장 남현호

부음

- ▲정병관씨 별세, 정진화(서인병원 사회사업과장)·정인설(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차

- 장)씨 부친상, 방신혜(전 성균관대 GSB 과장)씨 시무상=9일 오후 5시, 창원 경성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산공원.
- ▲고옥선(권사)씨 별세, 박상규·박상은(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원)·박상훈(ST 대표이사 회장)·박애경·박혜경·박성미씨 모친상, 김경희·박세라씨 시모상, 사지환(세광감리교회 원로목사)·윤석인(전 대한전선 부장)·박해성(전 BOE하이디스 대표이사)씨 장모상=9일 오후 7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에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강화 석모도 선영.